

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6.24. 매일경제는 「일몰 앞둔 혼인세액공제…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», 「자녀세액공제 10만원 받던 저소득층… 보조금 전환때 55만원」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 지원 방식을 현행 ‘세액공제’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‘보조금’ 형태로 전격 전환”하고,
 - “개편안이 시행되면 산출세액이 10만원인 근로자도 한도와 상관없이 55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돼 실질 혜택이 늘어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“혼인세액공제 역시 조세지출에서 직접지원 방식인 보조금으로 전격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혼인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보조금 등 재정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bro@korea.kr)
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kimjinsu@korea.kr)